

#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 분석: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 격차 분석

양 정 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각 가구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소비한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이에 대해 종단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매년마다 전국의 약 1,300에서 1,800개 가구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5분위로 나는 각 집단간에도 사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1. 서론

현재 한국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한 가지 꼽으라면 양극화 현상일 것이다. 사회 양극화 논의에서 시작된 가난의 대물림, 상위 20% 대 하위 20%간의 격차 등의 표현이 교육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논의전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일반 국민의 믿음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속담처럼 배움 그 자체가 사회적 지위상승을 가져올 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최근 교육 양극화 현상을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처럼 교육의 역할이 지위상승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지위고착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소위 '에듀튜어'란 신조어에서 등장할 정도로 자녀교육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사회문제를 개선할 필요성 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으로 자녀를 대학까지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3억 896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20%에 이르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의 사교육비 비중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림 1] 자녀 1인당 대학까지의 총 양육비용(중앙일보, 201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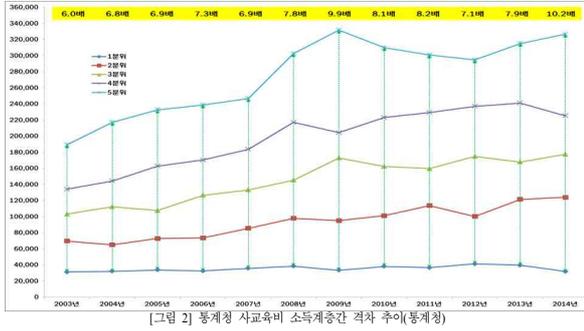
현재의 상태로 교육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사회갈등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당히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회양극화 또는 교육 양극화가 좀더 심해진다면 사회가 알분되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이 가능한 계층사다리의 역할을 한 교육은 새로운 5대 교육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분야를 넘어서 사회양극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교육 5대 양극화는 사교육 양극화, 학업 양극화, 대입 양극화, 대학 양극화, 신분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양정호, 2015).

특히 사교육비 양극화는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허용 판결이후 급격한 증가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일상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공식적인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내외이지만, 실재로는 3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연간 교육예산 규모가 50조정도로 볼 때 공교육 총 예산의 60%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발표(2015)에서는 2014년의 총사교육비는 18.2조로 나타나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사교육비 통계에는 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용이 제외되었으며, 유치원과 대학생 및 성인의 사교육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 공식 통계 발표 이외에 별도로 통계청의 가구단위 세밀한 소비조사인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총사교육비는 무려 32.9조로 추정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의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격차는 최근 10.2배까지 급증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 하위 1분위와 소득 상위인 5분위의 격차는 2003년에는 6.0배에서 2014년에는 10.2배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사교육 참여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교육에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 사교육비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사교육비 양극화가 교육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십여년 이상의 종단자료를 이용해 전반적인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 15년간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동일가구를 추적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장기적인 사교육비 변화를 파악이 가능한 사교육 및 사교육비관련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실증적인 종단분석을 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집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최근 2015년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조사한 종단적인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은 최초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5,000가구를 패널 표본 가구로 선정하여 매년 동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남제량 외, 2005). 특히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가구의 자녀당 월간 사교육비, 사교육종류, 사교육 횟수, 사교육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교육 활

동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국 도시가구의 사교육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사교육관련 자료수집은 해당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3차년도 자료(2000) 이후부터 사교육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2차년도 자료에는 사교육관련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1차년도 자료(1998)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제한적인 사교육 자료만이 수집되었다. 또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대한 조사는 4차년도 부터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사교육비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 4차년도 이후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계수생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만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각 년도마다 약 1,300에서 1,800가구내외의 가구자료이다.

#### 2. 사교육비 변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각 가구에서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이용하였다.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도마다 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항목 중에서 “작년 한해 동안 \_님 님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에서 학원 또는 과외비 등의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각 가구내 매월 평균 총 사교육비만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수, 연령 그리고 사교육 형태에 따라서 지출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가구가 소비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매년 동일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종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세를 알아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교육비 지출정도를 몇 개의 집단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지출 순위를 파악한 후에 전체를 5개 또는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5분위 또는 10분위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위 분위와 상위분위간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은 경제학에서 소득분포의 파악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정도 파악을 위해 5분위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세의 비교를 위해 소득분배 불평등의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다극화 지수(polarization index)를 이용해 사교육비 양극화를 분석할 수도 있다(신동균, 2005; 양정호, 2008; Duclos, Esteban, & Ray, 2003, 2004; Wolfen, 1994, 1997). 본 연구

에서는 자료분석의 기술적인 제한으로 양극화 지수의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분석에서는 양극화 지수의 분석도 보완하려고 한다. 간단히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극화 지수는 Duclos, Esteban 그리고 Ray(2003, 2004)가 개발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P_{\alpha}(f) = \int \int f(x)^{1+\alpha} f(y) |y-x| dy dx \quad (1)$$

식 (1)에서  $x, y$ 는 각각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이고  $\alpha$ 는 동질성 함수의 중요도 또는 다극화 지수의 민감도(polarization sensitivity)로서 0.25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상수이다. 위의 다극화 지수에서 동질성이 중요시 되면  $\alpha$  값이 커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값이 작아지게 된다. 만약  $\alpha$  값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0의 값을 가질 때는 지니 계수와 같게 된다.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이러한 다극화 지수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것은 선동균(2005)과 Duclos, Esteban 그리고 Ray(2003, 2004)에 기술되어 있다.

#### IV. 연구 결과

지난 15년간의 사교육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사교육비 지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의 격차 파악을 위해 다양한 지수들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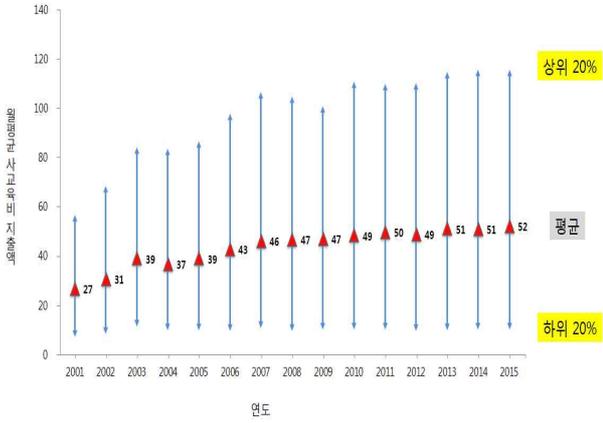
##### 1. 사교육비 지출 분포의 추이

우선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1>에서 각 연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조사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대체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MF와 미국 금융위기 시절에도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1에는 월평균 26.8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였고 2002년에는 30.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46.9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한 이후에 2015년에는 52.4만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용이 50만원을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사교육비 지출의 기술통계치 및 5분위 분포

연도	조사 차수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5분위 분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1	4차	1367	26.7783	20.8157	7.4717	15.0410	21.7435	31.7280	56.8467
2002	5차	1394	30.7862	29.0921	8.4879	17.6754	24.6902	33.7768	68.5000
2003	6차	1477	39.1605	30.3942	11.3946	21.9965	31.9747	45.2579	84.2339
2004	7차	1512	36.8618	30.2151	9.8237	19.8453	29.7380	43.9218	83.7603
2005	8차	1497	39.1323	30.7244	9.8163	21.2255	31.8438	45.2987	86.6346
2006	9차	1523	42.9829	35.0363	9.6120	22.4085	34.6231	50.9558	97.8119
2007	10차	1539	46.3574	42.7030	10.7700	23.1170	35.7012	54.3270	106.6250
2008	11차	1608	46.8650	39.1273	9.5687	25.2188	38.6285	55.4389	104.9702
2009	12차	1862	47.1654	35.8006	10.2558	25.3268	39.4056	56.1933	100.8604
2010	13차	1881	48.5254	37.8371	10.2550	25.7587	39.3902	57.9354	110.7868
2011	14차	1802	49.9899	38.4138	10.4077	25.9178	39.8912	58.9286	109.8843
2012	15차	1787	48.8570	38.5831	9.7486	25.4519	39.5131	59.7258	110.3743
2013	16차	1717	51.2479	41.0998	9.9759	25.6111	42.9354	63.4239	114.8276
2014	17차	1692	50.9738	42.5198	10.1391	25.9357	40.0515	59.9221	115.7994
2015	18차	1723	52.4022	41.7066	10.1952	25.8582	42.3910	63.0000	115.9162

또한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정도에 따라 전체집단을 5개로 구분한 5분위 사교육비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각 분위별로 사교육비 지출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보다 지출이 많은 5분위로 갈수록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도를 살펴보면, 1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7.5만원, 3분위는 21.7만원, 5분위는 56.8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15년 후에는 1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1만원, 3분위는 42.4만원, 5분위는 115.9만원으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1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정도 증가한 반면에, 사교육비 지출 5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6.8만원에서 115.9만원으로 59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가구당 상위 20%와 하위 20% 사교육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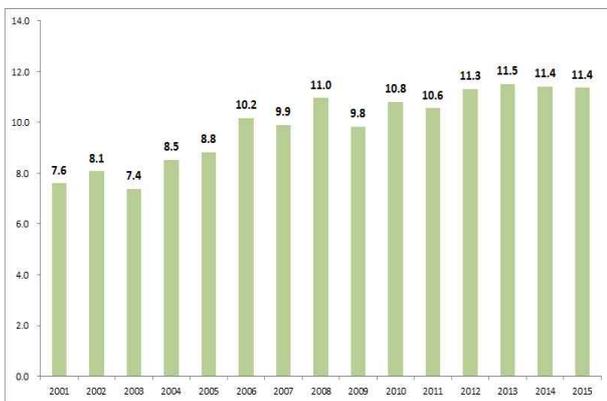
## 2. 사교육비 지출 격차 양극화 추이

앞의 사교육비 지출 분포에서 나타난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세를 좀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와의 집단간 격차 또는 불평현상을 살펴보았다.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2001년 이후 사교육비 지출 하위 20%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원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상위 20%의 경우는 57만원에서 116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를 비교하면, 2001년에는 7.6배,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8년에는 11.0배,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3년에는 11.5배, 그리고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11배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는 노무현정부에서 급속히 늘어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1년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가 감소한 이후 현재는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11배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11배라는 것은 이미 사교육비 양극화가 쉼대로 발생할 수 있는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사교육비 지출 1

분위는 사교육비용을 늘리지 않는 반면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는 지속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늘려왔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교육 계층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교육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더욱 유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교육비 양극화가 대입 진학 양극화, 그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4]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사교육비 지출 하위 20%와 상위 20%의 양극화 비율 변화 추이

## V. 논의 및 결론

2000년 이후 각 연도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분포에 대한 분석을 보면 매년마다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에서는 이미 월평균 10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와의 차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부분이 더욱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처럼 사교육비 지출 분포가 각 집단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어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면, 단순히 사교육비 양극화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양극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교육 양극화는 사교육 문제 해결에 집중 필요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현실화되면 교육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전반의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육 양극화 해결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OECD 교육경쟁력 부문에서 가장 문제되는 현안은 사교육 문제이다. 유아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사교육비 확대로 인해 교육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전반으로 사교육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가 한국형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의 평일 하루동안의 생활을 살펴보면, 학교수업이후부터 저녁 12시까지도 학원이나 인터넷방송을 통해 사교육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하루 24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의 생활패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은 학교생활과 더불어 학원생활을 동시에 하게 되는 현실에 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하루 학원수강 시간을 분단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70분정도를 평일에 매일 학원에 가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학원수강에 소비하는 학생은 하루에 320분정도까지 이르고 있다(양경호, 2015).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평일에 학원수강을 많이 하는 학생과 적게 하는 학생의 하루 일과표를 비교해 보면, 두 학생간의 학원가는 시간이나 활동이 매우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사교육 대체제인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및 학원 투명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저비용,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방과후 학교 교육공사인 가정 "AS 교육공사"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내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 가정 AS 교육공사(방과후 학교 교육공사, After School Inc) 설립해 우수한 강사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학원대상 사교육행정정보시스템(Private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PEIS) 구축을 통해 학원생과 강사, 강좌내용 현황 및 변동 등의 세밀한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세금탈루 문제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현실화되면 교육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전반의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육 양극화 해결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교육과 경제성장이 초등학생처럼 학령인구가 급증할 때는 경제성장도 20년 주기로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1970년부터는 한 세대 이후인 30년후에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생각해 미리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교육 5대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 교육대상인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 연관성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후속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양극화 또는 다극화 지수를 활용해 실제 양극화 추이가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양한 종단자료의 특성을 반영해 사교육과 다른 관련성이 있는 교육현안과의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형원·이두휴(200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2(1), 1-42.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교육부.
- 김태유(2001). *교육은 살아있다*. 서울: 말과장조사.
- 김상원(2004).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부와 교육 1번지 강남의 모든 것.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양분·김미숙(2002). *입시학원의 교육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양승실·김영화·이주호(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열 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3), 149-180.
- 김영화(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13(3), 85-108.
-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KIIPS Research Brief*, 4, 1-11.
- 김원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남재광·김지경·성세민·이상호·최효미(2005). 제6차(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균(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미발표 논문.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0(2), 261-283.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213-234.
- 양정호(2015). *교육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 국회 세미나 자료집.
- 양정호·김정근(2003).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조직의 효과: TIMSS-R의 위계적 선형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2), 165-184.
- 오육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우원식·이경영(2005). 교육투자 기회 격차의 구조와 해소방안. 인적자원 협력망 워크숍 발표자료.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학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종각(2003). *교육열 올바로 보기*. 서울: 윈미사.
- 이주호·김선웅(2002).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8(2), 1-51.
- 한준상(2005). *국가과외*. 서울: 학지사.
- Bray, M.(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Paris: UNESCO.
- Duclos, J.-Y., & Abdelkrim, A.(2005). *Poverty and equity: Measurement, policy and estimation with DAD*. Quebec, Canada: Universite Laval.
- Duclos, J.-Y., Abdelkrim, A., & Fortin, C.(2004). *DAD: Distributive analysis user's manual*. Quebec, Canada: Universite Laval.
- Duclos, J.-Y., Esteban, J., & Ray, D.(2003).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CIRPEE Working Paper 03-01, Universite Laval, Quebec, Canada.
- Duclos, J.-Y., Esteban, J., & Ray, D.(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Seth, M.J.(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